

근대소설연구에서 몸 담론의 전개과정과 쟁점*

안 미 영**

1. 서론
2. 몸 담론의 전개 양상과 근대소설사의 시대 구분
3. 근대소설 논의에 나타난 몸 담론의 쟁점
 - 3.1 체제를 내면화하는 집단의 모형
 - 3.2 근대적 인간으로서 '개인'의 존재방식
 - 3.3 여성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여성의 몸
4. 근대소설에 나타난 반자연성(反自然性)과 자연성(自然性)으로서의 몸
5. 결론

* 이 논문은 2005년 겨울 한국여성문화학회 전국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이재복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근대소설을 대상으로 논의된 '몸 담론'을 살펴보았다. 몸 담론은 크게 1890~191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1890~1910년대 신문의 서사물과 신소설에 관한 논의에서는 국가주의에 상응하는 '국민'의 신체 만들기가 몸 담론의 관건으로 나타난다. 1910년대 이광수의 「무정」과 그의 논설에 관한 논의에서는 '개별성과 공리성이 착종하는 우생학적인 몸'이 몸 담론의 관건으로 나타난다. 1920년대 소설에 관한 논의에서는 '욕망하는 여성의 몸'과 '욕망을 억제하는 시선'이 몸 담론의 관건으로 나타난다. 1930년대 이상 소설을 비롯한 모더니즘 소설에 관한 논의에서는 '근대적 존재'로서 '개인의 몸'이 몸 담론의 관건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몸 담론의 전개과정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근대소설에 나타난 몸 담론의 쟁점을 '체제를 내면화하는 집단의 모형', '근대적 인간'으로서 '개인'의 존재방식, '여성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여성의 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몸을 자연성(自然性)을 실현하는 시공간이라고 볼 때, 한국근대소설 논의과정에서 '몸 담론'은 몸의 반자연성(反自然性)에 주목하고 몸을 구축하는 권력의 미세한 성격을 조명하고 있다.

핵심어 : 몸 담론, 국민의 신체, 우생학적인 몸, 집단의 모형, 개인의 신체, 여성의 몸

1. 서론

‘몸 담론’에서 ‘몸’은 정신과 이성의 대안으로 주체를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토대이다. ‘몸’은 물질성, 개인성, 사회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을 조직하는 가시적인 주체이다. ‘몸 담론’은 당면한 시간과 공간의 성격을 체화한 몸을 통해 당대의 특수성과 이데올로기를 추적해낸다. 소설 연구방법론으로서 ‘몸 담론’은 작가의 의도 및 작품이 만들어진 당대의 지배 담론에 대한 성찰을 유도해낸다는 점에서, 미시적이고 적극적인 소설 독법이다. 근대소설에 나타난 몸 담론은 한국근대문학사가 노정(路程)하고 있는 ‘계몽’, ‘식민지’, ‘근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타율적으로 강요되거나 자율적으로 선택한 지배 담론은 내면화될 뿐 아니라 몸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몸 담론’은 개화기를 비롯한 근대에 걸쳐 한국에 만연했던 전체주의, 국가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기독교, 문명화 등을 읽어 들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담론이다. 그러므로 근대소설을 대상으로 한 몸 담론에서는 전통과 문명, 그리고 식민지가 착종하는 가운데 적절하게 변용되는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근대라는 시공간의 특수성과 이데올로기를 전유하는 작중 인물의 몸놀림에 주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근대소설연구에서 몸 담론이 전개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연구에 있어서 ‘몸 담론’에 대한 종합적 고찰은 이재복, 조영복, 이경훈, 김정자 등의 선행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재복의 「몸담론연구사고찰」(『국제어문』 30, 2004)은 몸 담론의 철학적 배경과 근·현대문학, 시와 소설, 여성문학사 등 문학사 전반에 걸쳐 몸 담론의 문학적 공과를 논하고 있

으며, 조영복은 「21세기 문학의 몸 혹은 최후의 인간」(『소설과 사상』, 2000, 봄호)에서 나도향, 이상, 이청준, 조세희, 윤대녕의 소설에 나타난 몸의 의미를 분석하고 문학의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이경훈은 『오빠의 탄생-한국 근대 문학의 풍속사』(문학과지성사, 2003)에서 ‘풍속’의 관점에서 근대문학을 조명하고 있다. ‘풍속’은 내면화한 습속이 대중의 몸을 통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당대 재현되는 몸의 실상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몸 담론이다. 김정자를 비롯한 10명의 필자들은 『몸의 역사와 문학』(태학사, 2002)에서 근대소설에서부터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몸 담론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그 밖에, 근대소설의 ‘몸 담론’에 영향을 미친 인접 학문의 성과로 조형근의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화」(김진균 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를 빼놓을 수 있다. 조형근은 개화기에서 해방전에 걸쳐 개별 신체에 가해지는 국가적 차원의 감시와 통제의 기제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근대적 질병론이 유입됨에 따라 ‘기계론적 신체관’이 출현하고, 병원·가정·학교 등 국가의 미시적인 규율 체제는 개별적인 신체를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신체로 제조한다. 조형근은 식민지체제에서 의료적 규율화를 통해 ‘근대적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으며, 푸코의 논리를 입점으로 하는 그의 논의는 이후 개화기 소설의 몸 담론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근대소설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몸 담론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몸 담론을 논하기 앞서, 우선 몸 담론이 발생하게 된 내적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대(前代)에도 ‘몸’은 존재해 왔건만, 근대를 논하는 담론 체계에서 왜 ‘몸’이라는 키워드가 부상하게 되었는가. 전대와 달리 ‘몸’이 담론의 무대에 부상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 ‘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

기 때문이다.¹⁾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근대소설을 논하면서 ‘몸’을 조명하는 이유는 전대(前代)와 다른 인식의 차이를 ‘몸’이 체현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대와 구분되는 몸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서 유래했으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근대(개화기~1930년대)라는 시공간의 담론 체계가 지닌 특수성에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²⁾ 근대를 구성하는 담론의 체계는 분화되고 전문화된다. 과학, 사회(정치), 종교 등의 영역 구분은 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과학이 몸을 대상화하고 기계화했다면, 사회는 몸을 계층적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한다. 종교는 몸을 정신과 비교하여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폄하한다. 결과적으로 ‘몸’은 정신과 분리되고, 사회의 일정 영역을 선도해야 할 직책으로서 청년의 몸·어머니의 몸·아동의 몸이 구분되며, 종교에 귀의할 수밖에 없는 열등하고 불완전한 대상으로 평가된다. 기독교에서 ‘천국’은 교인들에게 육체를 배제한 ‘영혼의 공동체’를 제시한다. 과학과 종교의 담론 속에서, 정신과 달리 ‘몸’은 썩어 없어지며 죄짓는 대상으로 열등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문명이 유입되는 근대 식민지 사회에서 ‘몸’은 동시대 착종된 다양한 담론을 체현해 낸다. 근대소설의 작중 인물은 ‘인간’·‘사람’으로 존재한다기보다 ‘백성’, ‘민중’, ‘시민’, ‘개인’, ‘민족’, ‘동포’ 등 봉건성과 근대성이 착종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들은 식민지 백성이며,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민중이기도 하며, 해방

1) 피터 부룩스는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 ‘근대적’ 육체의 출현이 육체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이해하는 조건’, ‘육체가 의미의 체계 속에 들어오는 양식’이 전과 달라졌다고 말한다.(피터 부룩스, 『근대적 육체의 성립 : 프랑스 혁명과 발자크』,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p.116).

2) 개화기 담론체계에 영향을 미친 과학, 사회, 종교의 영향력은 박현우의 「개화기 ‘몸’ 담론의 의미 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에서 ‘서구적 몸 개념의 등장’을 참조했다.

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과 동포를 호명하는 지사(志士)이며, 동시에 그들은 근대 도시를 산책하는 시민이기도 하다. 작가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궁극적으로 근대소설에 나타난 '몸'은 근대적 인간의 존재방식을 재현해낸다는 점에서 근대소설에 등장하는 '근대적 존재'의 성격과 의의는 '몸'을 통해 구체화 된다. 근대소설에서 작중인물의 몸을 통해 구현된 '근대적 존재'는 종국적으로 근대 새롭게 출현한 인간에 대한 인식을 표상한다. 근대적인 몸은 공공성을 답습하지만 때로는 공공성을 배반한다. 공공성으로부터 분리되어 '몸'은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는 담지체로서 개인을 대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소설에 구현된 '몸'은 근대적 인간의 거처라 할 수 있다.

근대소설에서 '몸'은 규율과 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하느냐, 일탈·부정·저항의 주체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근대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근대소설 연구방법론으로서 몸 담론은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문학연구의 유효한 방법론이다. 이 글은 근대소설 연구방법론으로 등장한 몸 담론이 어떤 작품을 대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근대소설 연구방법론으로 출현한 몸 담론에 대한 방법론적인 의의뿐 아니라, 근대소설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이 글에서는 근대소설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몸 담론의 쟁점을 살펴보기 앞서, 우선 몸 담론의 전개과정과 근대소설사의 시기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작품을 대상으로 몸 담론이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밝혀진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2. 몸 담론의 전개 양상과 근대소설사의 시대 구분

근대소설의 논의과정에서 '몸 담론'이 전개되는 과정과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통시적인 관점에서 몸 담론의 추이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근대소설 논의과정에서 몸 담론은 이광수의 소설(『무정』)과³⁾ 이상(李箱) 소설에서⁴⁾ 가장 많이 진척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이광수의 소설과 이상(李箱)의 소설은 전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담론 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이광수의 『무정』(『매일신보』, 1917.1.1~6.14)은 본격적인 근대소설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1930년대 이상(李箱)의 소설은 한국 모더니즘소설의 정수라는 점에서 각각 문학적 성과와 의의가 널리 규명된 만큼, 그들의 소설에 나타난 '몸 담론'은 풍성한 수사학은 물론 당대 지배 담론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이 장에서는 개화기, 1910년대 이광수의 『무정』과 그의 논설, 1920년대 김동인과 염상섭 등의 소설, 1930년대 이상(李箱)과 모더니즘 소설 네 시기로 나누어 몸 담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3) 이영아, 「이광수 『무정』에 나타난 '육체'의 근대성 고찰」, 『한국학보』 28, 2002. 봄호.

구인모, 「『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 『비교문학』 28, 2002.

이경훈, 「『무정』의 패션」, 『오빠의 탄생』(문학고지성사, 2003).

신정숙,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민족개조사상'과 '몸'의 관계양상에 관한 연구」(연세대석사학위논문, 2003).

김주리,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체담론 연구」(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5).

4) 이재복, 「李箱 소설의 몸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한양대박사학위논문, 2001).

안미영, 「李箱 소설에 나타난 신체인식 표출양상」(경북대박사학위논문, 2001).

김양선,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과 몸의 서사」, 『여성문학연구』 8, 2002.

김주리,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체담론 연구」(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5).

	시기	논의 대상(텍스트)	시기별 몸 담론의 특징
1기	1890~1910년대	신문의 서사물과 신소설	국가주의에 상응하는 '국민'의 신체
2기	1910년대	이광수의「무정」과 논설	개별성과 공리성이 착종하는 우생학적 몸
3기	1920년대	김동인과 염상섭 등의 소설	욕망하는 여성의 몸, 욕망을 억제하는 시선 (권력)
4기	1930년대	이상(李箱)소설과 모더니즘 소설	근대적 존재로서 '개인'의 몸(mode)

1기에서 몸 담론은 체제가 몸을 어떻게 규율하고 관리해 왔는지 주목한다. 개화기 몸 담론에 나타난 병리학적 사유방식은 '질병 대(對) 몸'의 도식을 통해 국가주의가 국민을 규합하고 훈육하는데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몸은 근대적 주체로 존재하지 못한다. 근대적인 몸이 규율과 통제에 대응하고 저항과 자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할 때, 1기 개화기 서사물에 나타난 몸은 수동적 존재로서 체제에 흡수된다. 이영아는 개화기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에 새겨진 의미를 분석하면서, 등장인물의 육체를 통해 당대 앓고 있는 국가 조선의 이미지를 읽어내고 있다.⁵⁾ 1기의 몸 담론이 '통제대상으로서 몸'이 체제의 규율에 편입되는 방식을 보여준다면, 2기의 몸 담론은 '개별성과 공리성이 착종하는 몸'을 조명함으로써 공공성을 구현하되 '자발성'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기는 이광수의 「무정」(『매일신보』, 1917,1.1~6.14)을 기점으로 나누어진다. 이광수 소설을 대상으로 몸 담론이 부각되는 이유는, 전시기와 달리 주인공이 욕망을 통제하고 공공을 위해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5)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 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5).

고 인물 스스로 몸의 욕망을 자각하고 이것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은 영체의 몸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노출하고, 영체와 계향은 서로의 육체를 탐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노출한다. 이영아는 「이광수 『무정』에 나타난 ‘육체’의 근대성 고찰」(『한국학보』, 2002, 봄호)에서 「무정」 분석을 통해 여성의 육체를 알고자 하는 형식의 개인적인 욕망에 주목한다. 이광수는 육체적 욕망을 인정하되, 정신을 우위에 둔다. 이형식은 몸의 개별적 가치에 눈을 뜨지만, 국가와 민족 차원의 공리적 가치를 위해 헌신한다. 이광수는 공리성을 배제한 몸의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광수 소설의 주인공들은 ‘통제’, ‘규율’, ‘훈육’과 같은 공적 기제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끼워 맞춘다. 그러므로 이광수가 소설에서 조명하는 인물은 ‘사회적이며 공리적인 인간’이다. 반면, 그의 소설에서 공리적인 몸 만들기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인물이야말로 오히려 근대적 ‘개인’의 면모를 보인다.

이광수 소설의 주인공들은 남녀간의 사랑, 육체에 대한 인식, 성적 경험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자율적인 개인을 자각하지만, 그들은 집단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때 개인은 국가나 사회,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인자로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정숙은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민조개조사상’과 ‘몸’의 관계양상에 관한 연구」(연세대석사논문, 2003)에서 이광수가 지향하는 ‘우생학적 신체’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전략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2기의 몸 담론에서 이광수가 제시하는 몸은 개인의 몸이면서, 그에 앞서 공공(公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공리적인 몸이다. 구인모는 「『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비교문학』 28, 2002)에서 「무정」에 나타난 우생학적 연애관에 주목한다. 이광수가 지향하는 우생학적 신체는 우수 집단체의 모형이 된다. 이광수는 1910년대 「무정」과 그의 논설에서

몸이 봉건적인 관습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개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적으로는 몸이 공공(公共)을 위해 개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몸'에는 개인에 대한 사유와 집단에 대한 사유가 착종되어 있다. 몸 담론과 관련하여, 이광수의 『무정』이 차지하는 의의는 작중 인물이 개인성으로서 몸을 자각함과 동시에, 공공(公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몸을 개조하려는데 있다. 『무정』이후 이광수 소설의 주인공들은 “식민지적 지배의 기본적인 전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타자로부터 구별하고 자기 자신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인간형”에 근사(近似)하다는 점에서⁶⁾, 당대 식민지 권력이 새롭게 창출하려는 인간형과 교차한다.

3기는 김동인과 염상섭 등 192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한 몸 담론이다. 1920년대 소설에 이르면 작중 인물은 근대적 '개인'으로 등장하는데, 염상섭의 『만세전』에는 전대(전통)의 집단적 인간과 다른 근대적 개인(이인화)이 등장한다.⁷⁾ 1920년대 접어들면서 몸은 공공을 위해 '헌신(獻身)'하기보다, 사적인 '욕망'을 실현한다. 몸을 통해 구현되는 사사로운 욕망은 '애욕'과 '물질'이다. 1920년대 소설에는 '사적인 몸'이 출현하지만, 작가들은 몸의 개별성을 쉬이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1920년대 소설에서 여성의 몸은 소설의 화두로 부상하지만,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작가와 사회의 시선은 통제와 이데올로기를 동반한다. 1920년대 소설논의 과정에서 부각된 몸 담론의 특징은 '섹슈얼리티'에

6) 김진균·정근식·강이수,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 권력』(문화과학사, 1997), p.77.

7) 1919년 3·1운동은 가능성과 좌절을 동반하면서 1920년대 소설 담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송기섭은 「〈만세전〉의 이인화 탐구」(『현대소설연구』 17, 2002)에서 작중 주인공 이인화를 통해 근대적 인간의 특성으로 감성적 인간의 감정을 추출해 내고 있다.

대한 논의이다. 이경은 「1920~1930년대 소설에서의 매춘-제도의 거울」(『한국현대문학의 성과 매춘』, 태학사, 1996)에서 1920~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몸'을 매춘이라는 사회 문제로 조명하고 있으며, 동일한 관점에서 김윤선은 「192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성담론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에서 1920년대 소설에 나타난 기생과 여학생의 몸을 매매(賣買)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김윤선은 여성 인물의 사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여성 인물의 구체적인 성적(性的) 상징과 서사구조간의 관련성에 대해 깊이 다루지 못했다. 이경과 김윤선은 작중 부각되는 '여성의 성적 경험'이 성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당대 사회적 추이와 맥락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이혜령 역시 「한국 근대소설의 섹슈얼리티 연구 -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에서 1920년대 소설과 1930년대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당시 여성의 몸에 가해진 다양한 정치적인 규율과 이데올로기를 읽어내고 있다.

1920년대 소설사의 전개과정에서 김동인과 염상섭의 소설이 논의의 중심에 놓여있듯이, 1920년대 몸 담론에서도 그들의 작품은 텍스트의 중심에 놓여 있다. 192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몸 담론'에서, 그들의 작품은 여성의 사사로운 욕망을 통제하는 1920년대 텍스트의 전형이다. 1920년대 소설에서 김동인과 염상섭은 '광인(狂人)'은 인정할 지언정 '여학생'을 비롯하여 주체의 욕망에 눈뜬 '여성'은 철저히 통제한다. 그들의 소설에서, 두드러진 여성의 외모와 지성은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김동인의 「감자」(『조선문단』, 1925.1)에서 성(性)에 눈뜬 복녀와 「김연실전」(『문장』, 1939.3)에서 선각자 김연실이 파멸해야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어머니」(『춘추』, 1941.봄)에서 추한 외모의 곱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거세되었지만 강인한 모성

을 구현해 내는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한다.⁸⁾ 염상섭의 「제야」(『개벽』, 1922.2~6)는 여성의 목소리로 자신의 욕망을 단죄하는 한 편의 고백록이다. 1920년대 남성 작가들은 당대 움트기 시작하는 몸의 욕망,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금제하고 철저히 통제한다. 이해조의 「박정화」(『대한민보』, 1910.3.10~5.31)에서 강릉집의 ‘욕망하는 몸’이 가난한 부모의 봉양(孝)과 일부종사로 철저히 통제되었듯이, 1920년대 ‘여성의 욕망하는 몸’은 단죄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 1920년대 소설 논의 과정에서 전개된 몸 담론은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남성을 비롯한 당대 다양한 권력(시선)에 대한 논의들이다. 이러한 논의는 1930년대 소설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4기는 이상(李箱) 소설과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논의에서 제기된 몸 담론이다. 이상(李箱) 소설과 모더니즘 소설은 전대의 소설에 비해 몸의 수사학이 돋보인다. 이 시기에 이르면 몸은 ‘폐병’, ‘각혈’, ‘불구’, ‘독화(毒花)’ 등 소설의 수사학으로 자리를 잡는다.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앓는 몸’은 단순히 질병, 미개한 조선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식민지와 이데올로기, 문명에 대한 복합적인 비판과 자의식을 환유한다. 작품에 등장한 몸은 소설의 수사학이자 몸에 대한 작가의 통찰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이르면 ‘몸’은 근대적 인간의 존재방식으로서 현실에서 개인의 삶이 재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작중 인물은 근대적인 ‘개인’의 다양한 모드(mode)이다.

8) 이해경은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신체 IMAGE 연구」(충남대석사학위논문, 1990)에서 신체 이미지를 통해 작가의 표현미학과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재선은 「표현의 장으로서 신체」(『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출판부, 1989)에서 주제론의 관점에서 몸을 문학 담론의 영역으로 수용한 바 있는데, 이해경은 김동인의 소설에서 표현의 장(場)으로서 신체의 특징에 주목한다. 김동인은 머리와 상부 신체가 주로 표현의 장이 된다.

논의의 편의상 시기를 나누었지만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각 시기를 대표하는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시기마다 전대의 다양한 성격이 혼재되어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다만, 각 시기에 대두된 몸 담론은 그 시기에 대두되어 다음 시기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20년대 남성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과 작가(남성)의 시선은 1930년대 남성 작가의 작품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근대소설에 나타난 몸은 ‘근대’가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담론의 제 영역을 몸을 통해 가시적으로 구현해 낸다. 그에 따라 몸 담론은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형된다. 전대의 몸 담론이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몸에 대한 새로운 담론은 재배치된다. 다음 장에서는 근대소설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몸 담론을 ‘체제를 내면화하는 집단의 모형’, ‘근대적 인간으로서 개인의 존재방식’, ‘여성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여성의 몸’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3. 근대소설 논의에 나타난 몸 담론의 쟁점

3.1 체제를 내면화하는 집단의 모형

개화기 몸 담론은 다음과 같은 텍스트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근대소설 출현의 전단계로서 미숙한 서사형식뿐 아니라 지면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개화기 몸 담론은 신문 사설을 비롯한 다양한 서사물을 개화기 문학연구의 텍스트로 포섭한다. 개화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개화기 담론 연구는 문학뿐 아니라 사회학과 종교학을

비롯하여 인접 학문에서도 동일한 텍스트(신문에 게재된 사설, 여행기, 편지 등)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성격을 감안하여, 개화기 몸 담론을 살펴보기 위한 이 장에서는 문학적 성과 외 인접학문의 성과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개화기 서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 몸 담론으로 김운성의 「개항기 개신교 의료선교와 몸에 대한 인식들의 '근대적' 전환」(서울대 종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을 들 수 있다.⁹⁾

김운성은 개항기 신문·여행기·일기 등 다양한 서사물을 텍스트로 삼아 '개신교 의료선교'가 몸의 담론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각종 여행기와 기록에서 개항기 의료선교인들은 한국에 대해 '가난과 질병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여한다. 개항기 의료선교인들은 그들의 여행기와 기록에 한국을 '가난과 질병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여한다. 개항기 의료선교 과정에서 '자연, 초자연, 인간, 인간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유기체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해 온 '전통적' 몸 담론은 '물질적 자연'의 영역으로 파악하는 근대적 담론에 의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미신적이며 적절하지 못한 담론으로 낙인이 찍힌다. 몸에 대한 기계론적 담론이 출현하여 "몸은 인간 '안에 있는 자연'으로서 '기계'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거나 '일종의 물(物)'로 여겨지게 되었다."(p.105) 정치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김운성의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개항기 몸 인식들의 근대적 전환 계기로 의료선교 외, 기독교 '교리'와 '성서' 수용의 영향력을 간과한 점이다. 그렇다면 손 치더라도 김운성의 몸 담론은 '개신교의 의료선교'라는 미시적 틀을 통해 개

9) 김운성의 글은 개화기(개항기)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초기에 이루어진 몸 담론이다. 근대문학을 대상으로 몸 담론을 전개하는 국문학 연구자들은 김운성의 글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항기 인식틀로서 몸의 근대성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구체성과 실증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승원은 「근대계몽기 서사물에 나타난 ‘신체’인식과 그 형상화에 관한 연구」(인천대 국문과 석사논문, 2000.12)에서 근대계몽기¹⁰⁾ 서사물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담론의 조직방식과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개화기 몸 담론의 특징을 규명한다. 그는 근대계몽기 서사물을 수사학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병리학적 사유’를 도출해 낸다.¹¹⁾ 아울러 아동·여성의 신체 등 몇 가지 소재에 주목하고, 신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에 상응하는 서사물을 주조한다고 본다. 이승원은 개화기 서사물에 나타난 몸 담론을 소개하면서 ‘개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서사물 속의 개인은 집단적 존재에 대한 개별 존재를 의미할 뿐 근대적 존재로서 주체 개념은 없으므로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그의 지적처럼, “신체는 주체로서 인식되지 않고 아예 하나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가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로 규정된다.”(p.16) 국가라는 지평에서 ‘신체’는 위생이라는 규율을 통해 철저히 대상화되었다. 그러므로 근대계몽기의 신체(몸) 담론은 개인이라는 근대적 주체의 존재방식을 구현해내지 못한 채, ‘신체-국가’를 대변하는 ‘사유 코드’를 보여주는

10) 동일 시기에 대한 명칭으로 ‘개항기’, ‘개화기’, ‘근대계몽기’, ‘애국계몽기’ 등 다양한 명명법이 있다. 사회학과 종교학 등 인접 학문의 텍스트에서는 ‘개항기’라는 가치중립적 명명법을 쓰는데 비해, 국문학에서는 ‘계몽’과 ‘애국’이라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명명법을 구사하고 있다. 국문학 연구자들의 글에 나타난 이 시기 명명법에는 연구자 자신의 특정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논문 저자의 명명법을 따르되, 이 시기를 통칭 개화기로 명명하도록 하겠다.

11) 박현우(「개항기 ‘몸’ 담론의 의미 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의 지적처럼 “몸은 개인과 집합적 존재가 직면한 위기·곤경·위험·모순들을 은유하고 직유하며 개념화하는 방식들의 심오하고 풍성한 원천이 된다.”

데 그친다. 청일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위세가 이 땅을 잠식하던 근대 계몽기, 현실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서사물에는 '병든 신체'에 대한 병리학적(pathological) 비유가 성행한다. 공공의 지면(신문)에 나타난 병리학적 비유는 개별 신체에 위협을 가하며, 몸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이승원의 논의는 문학영역에서 이루어진 개화기 몸 담론의 출발이라는 의의를 지니지만, 개화기 문학작품인 신소설에 대한 논의가 소략하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사회학의 관점에서 개화기 몸 담론에 주목한 논의로 박현우의 「개항기 '몸' 담론의 의미 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를 들 수 있다. 박현우는 개항기 몸에 가해지는 억압과 배제, 전통적 몸 담론과 근대적 몸 담론이 공존 타협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는 서구적 몸 개념에 동원된 과학적 사유와 사회 규함을 위한 도덕 담론 등을 통해 전대와 다른 청년, 어머니, 유아의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개화기 국가주의는 부국강병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몸'을 건강한 몸의 청년과 보육(保育)하는 몸의 어머니, 미결정된 몸으로서 아동(유아) 등으로 세분한다. 국가의 권력이 구현되는 법제와 경찰력은 신체를 통제한다. 개화기의 몸은 통제 대상으로 국가주의에 귀속될 뿐 아니라 제국주의의 담론 속으로 포섭될 여지를 남긴다. 개화기에는 개별적인 몸이 국가에 복속(服屬)할 수 있도록 신체 통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집단적 신체'이다. 비록 기차·시계·우편제도를 비롯하여 근대적인 시·공간을 경험하더라도, 그들은 전대부터 존속해 온 집단적 사유(유교적 사유)와 당대를 규율하는 국가주의의 통제로 말미암아 개인의 신체에 눈을 뜰 수 없었다. 개화기 신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국민(國民)' 만들기이다. '근대계몽기'라는 개항기의 시대적

특수성, '신문 사설'이라는 지면의 공공성은 개별적인 몸을 '통제받아야 하는 몸'으로 상징하고, '새롭게 개조되어야 하는 몸'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한다. 개화기 서사물에 나타난 몸은 공리적이며, 집단적이다. 사적이고 은밀한 비밀을 지닌 몸은 1920년대와 30년대 소설에서 개인의 출현과 더불어 나타난다.

박현우의 「개항기 '몸' 담론의 의미 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와 김윤성의 「개항기 개신교 의료선교와 몸에 대한 인식틀의 '근대적' 전환」(서울대 종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은 개화기에 전래된 과학, 기독교(의료선교) 등의 외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몸'에 가해지는 근대적인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다. 양자는 개화기 교과서와 신문, 일기와 편지 등을 텍스트로 삼고 있으며, 그들은 동일한 시기 몸 담론을 논의하는 문학 연구자들과 동일한 텍스트를 논의의 자료로 삼고 있다. 양자 모두 서구에서 전래된 근대적인 몸 담론과 구분되는 전통적인 몸 담론의 틀을 1894년 저술된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1901년 발간)에서 찾고 있다. 한의학을 비롯하여 유교적 사유가 전통적 몸 담론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적 몸 담론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 몸 담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대의 전통적인 몸 담론이 선행된다면, 개항기(개화기) 근대적인 몸 담론의 성과는 더욱 뚜렷하게 밝혀지리라 본다.

김윤성, 이송원, 박현우의 논의와 같은 맥락의 글로 고미숙의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책세상, 2001)을 들 수 있다. 고미숙은 개화기 신문과 잡지 등을 텍스트로 삼아 개화기 근대성을 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르고 있다.¹²⁾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이 개화기 각종 서사물을 텍스트로 삼고 있다면, 이영아는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 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서울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05)에서 신소설을 중심 텍스트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개화기 소설을 텍스트로 한 본격적인 몸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영아는 신소설에 등장하는 작중 인물의 외양과 행적을 통해 인물의 개별적 존재성을 밝혀내고 작품 안에서 병리학적 수사학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추적한다. 예컨대 「해안」에서 조선의 '아내'가 병자(病者)로서 앓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에 있는 '남편'은 의사(醫師)로서 문명화를 지향하는 신체를 지니고 있다. 신소설에 등장하는 병든 육체는 단순히 인물의 외양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화기 서구와 제국주의에 의해 병이 든 채로 재발견된 조선을 환유한다는 이영아의 논의는 신소설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김윤성·이승원·박현우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개화기 서사물을 대상으로 한 '몸 담론'은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서 '몸'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조명하고 있다. 개화기 몸 담론에는 서구의 계몽주의와 제국주의의 시선이 전제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몸 담론 역시 착종되어 나타난다. 규율과 통제의 대상으로 몸을 바라보던 시각은 유교적인 사유체계에서 자신(自身)을 통어하던 전대의 수신(修身) 담론과 결합하면서 더욱 견고한 계몽의 구도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 결과 개화기 서사물에 나타난 몸은 체제를 내면화하는 집단의 모형이 된다. 그 몸은 체제의 요구에 따라 규격화된 틀일 뿐, 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의 모형으로서 몸은 근대 국가주의에 부응하기 위해 신체, 국민을 만드는데 주력한다. 개

12)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책세상, 2001).

화기 신소설의 작중 인물들은 전대에 비해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근대적인 존재로서 개인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작중 인물들은 전대와 다른 존재방식,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 근대적 인간으로서 '개인'의 존재방식

1930년대 이상(李箱)의 소설에서 작중 인물의 '몸'은 전대와 구분되는 근대적 몸 담론을 재현해 낸다. 이상(李箱)은 육체의 한계, 죽음에 직면해 있었으므로 그의 소설에서 '죽음'은 매우 호소력 있는 알레고리와 수사학을 형성한다. 이상(李箱) 소설에서 '몸'은 분신(分身)¹³, 불구, 각혈, 질병¹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작중 인물은 몸을 통해 근대적 인간으로서 개인의 담론을 구현해 낸다. 이상(李箱)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몸은 개인의 모드(mode)이며, 1930년대를 표상하는 근대의 일그러진 표정이기도 하다. 이재복의 「李箱 소설의 몸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한양대박사학위논문, 2001.6)과 안미영의 「李箱 소설에 나타난 신체인식 표출양상」(경북대박사학위논문, 2001.6)은 이상(李箱) 소설에 나타난 '몸'을 통해 이상(李箱) 소설이 지닌 특수성을 분석해 낸다.

이재복은 서구 철학에 나타난 몸에 대한 사유를 문학 작품에 적용하여, 이상(李箱) 소설을 풍성하게 탐독해 내고 있다. '근대'가 몸을 배제한 이성으로 구축된 불완전한 체계라면 이상(李箱)은 몸을 동원하여 이성이 구축한 불완전한 체계를 전복시키는 '탈근대'를 구현해

13) 김주현, 「이상 소설과 분신의 주제」, 『한국학보』 95, 1999, pp.64~88.

14) 이경훈, 「『중생기』, 철천(徹天)의 수사학」과 「이상의 또다른 질병에 대하여」, 『이상, 철천의 수사학』(소명출판, 2000), pp.132~196.

낸다. 그는 이상(李箱) 소설에 나타난 ‘몸’과 ‘말’의 성찰을 통해 이상(李箱) 소설을 ‘몸으로 말하기’로 파악한다. 안미영은 몸에 대한 전통적 인식 틀을 형성해온 여러 요인 중에서, 유교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전통적 몸 담론과 근대적 몸 담론이 나누어지는 지점을 이상(李箱) 소설에서 찾고 있다. 근대적인 몸은 조상과 부모의 유체(遺體)로부터 개인의 몸(主體)으로 분리되었으며, 이상(李箱) 소설은 개인의 소유가 된 몸의 자율성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출현하는 ‘개인의 몸’에 주목하고자 한다. 1930년대 이상(李箱)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개별적 인간이다. 전대의 공리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은 자취를 감추고 없다. 이상(李箱) 소설이 근대적인 이유는 그가 발견하고 구현해 낸 인간이 근대적인 개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대해서 말하자면 이상(李箱) 소설이 지닌 풍요로운 메타포는 근대적 개인의 사유에서 기인한 것이다. ‘개인’에 대한 자각이 전제된 연후에야, 몸은 더욱 풍부한 사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모더니즘의 파편화된 사유 방식과 태도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조명하기에 적합하다.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몸은 비주얼(visual)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외모와 패션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은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각은 전대와 구분되는 인공(人工)의 몸을 만든다.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몸은 단순히 자연성(自然性)을 재현해 내지 않는다.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몸은 유혹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가공된 몸이다. 근대적 개인의 주체성은 시각적인 형태로 재구성된다.

최근에 나온 김주리의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체담론」(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5.6)은 이광수·염상섭·이효석·이상(李箱) 소설을 대상으로 근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신체담론의 변화에 주목하고, 근대 작

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신체담론의 제 양상을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광수가 혼육적 신체를 모색하고 있다면, 염상섭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조절하는 타산적 주체를 중심에 내세우고 있으며, 이효석은 세련된 매너와 감각을 중심으로 소비적인 신체를 구상하고 있고, 이상(李箱)은 도덕에 대한 반항과 탈주를 꾀하며 신체 해체를 지향하고 있다. 김주리는 근대 소설 속에서 신체가 재현되는 다양한 양상에 천착하면서 근대 사회의 체험이 어떻게 근대적 주체 형성에 기여하는지 밝히고 있다. 근대 소설에서 재현된 신체의 제 양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주리의 논의는 근대적 신체의 다양한 모드(mode)가 형성되는 과정을 밝혀낸 미덕이 돋보인다. 반면, 문학사의 통시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광수와 염상섭, 이효석과 이상(李箱)이 동시대 활동한 근대 작가이지만, 개별 작가들의 활동시기에 반영된 시대적 추이와 문학사적 맥락은 다르다. 근대소설사에서 몸 담론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면서 변화한다. 이광수의 「무정」은 개화기와 구분되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상(李箱) 소설은 근대와 구분되는 탈근대의 특수성을 노정하고 있다. 몸이 시공간에 의해 형성된 조직체라면 몸 담론은 필연적으로 시대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몸 담론은 다른 담론에 비해 문학사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이광수와 염상섭, 이효석과 이상(李箱)이 재현해 내는 신체간 맥락을 각각의 시대적 특수성에서 읽어내야 할 것이다.

김양선은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과 몸의 서사」(『여성문학연구』 8, 2002)에서 이상(李箱), 최명익, 유항림의 소설을 통해 근대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일차적 장소이자 저항의 거점으로서 ‘남성의 몸’을 조명하고 있다. 이때 ‘몸’은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언어의 형식을 갖추

지 못한 주체의 무의식을 의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담론의 틀로 수용된다.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없는 신체'는 시대가 개인에게 병을 이식(利殖)시킨 것이 아니라 시대에 대한 개인의 독자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1930년대 지식인 주체의 자의식을 보여준다. 작중 '남성의 몸'을 통해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은 다채롭게 조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양선의 논의는 모더니즘 소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가 중 단지 세 작가를 대상으로 한 만큼, 더 많은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김양선의 논문과 더불어 김연숙의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육체의 재현양상」(『여성문학연구』 11, 2004)을 살펴보는 일은 흥미롭다. 김연숙은 1930년대 소설에 구현된 '남성의 앓는 몸'이 시대적 고뇌를 환유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앓는 몸'은 히스테리와 부덕(不德)으로 폄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김연숙의 논의는 논의할 텍스트와 범주가 구체화될수록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해 낼 수 몸 담론의 특징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근대 문학의 성격을 명명하는 명제로서 '개인 의식의 성장'을 들 수 있는데,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등장하는 산책자를 비롯한 남성 주인공들은 당대 개인이 존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준거라 할 수 있다. 반면, 1920년대를 거쳐 1930년에 이르기까지 작중 여성 인물은 산책과 같은 존재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몸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1920년대 소설에 등장하는 욕망하는 '여성의 몸'에는 비록 '개인의 의식'이 각인되어 있긴 하지만, 이 시기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은 근대적이라기보다 근대에 대한 과도기적 단계의 문제를 노출한다. 작중 여성 인물이 개인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몸을 이용했듯이, 인물에 대한 응징도 여성의 몸 손상(자살)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몸이 부각되기 시작한 1920년대 몸 담론의 특징은 1930년대 소설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930년대 소설에서도 여성 인물의 몸은 1920년대 소설과 마찬가지로 억압과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들은 '개인'의 모드(mode)를 갖지 못한 채 전근대적 존재를 표상한다.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몸'은 그 속에 다양한 층위의 이데올로기가 각인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목소리와 더불어 장을 달리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3 여성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여성의 몸

근대소설에서 '여성의 몸'은 여성의 '목소리'를 재현한다. 작중에서 '여성의 몸'은 말이 되지 못한 '여성의 목소리(voice)'를 보여준다. 일제 식민지라는 근대의 특수성은 아버지의 질서를 강요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강요되던 시기였다. 여성의 목소리는 억제되고 남성 목소리의 후광아래 배제되던 시기이므로, 근대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은 언표를 갖지 못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여성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몸은 당대 사회에서 발화될 수 없었던 여성의 내면과 주체성을 구현해 내는 의미 있는 몸짓 언어이다. 이 장에서는 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몸'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려 한다. 첫째, 여성의 몸이 재현해 내는 목소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가. 둘째,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는 누구인가.

우선 여성의 목소리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몸'을 통해 구현되는 여성의 목소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억눌러 지내는 '여성'을 일깨우기 위한 자각의 서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대항의 담론인가. 이러한 물음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작중 여성 인물이 '자기 욕망의 주체'로서 '여성의 몸'을 감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이데올로기와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주체로서 '여성의 몸'을 동원한 것인가. 근대소설에서 다수의 여성 작가들이 '자기 욕망의 주체'로서 '여성의 몸'을 담론화 하고 있다면, 이상(李箱)과 같은 모더니즘 작가는 '비판과 저항의 메타포'로서 여성의 몸을 동원하고 있다. 이상(李箱)은 작중 여성의 몸을 통해 당대 지배 담론(자본주의·문명화)에 대항한다. 다수의 근대 여성 작가들은 '여성의 몸'을 통해 '여성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친다. 작중 여성들은 '몸의 쾌락'을 자각하느냐 '자유연애'를 체현해 내느냐 '자발적인 노동'에 눈을 뜨느냐 등의 문제에 주목한다. '여성의 몸'이 실어내는 목소리가 시대를 통찰하는 자명종이 되기에 한국의 근대가 짙어진 굴곡이 너무 많았다.¹⁵⁾

다음으로, 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가 누구인지 주의해야 한다. 바라보는 주체의 성(性)에 따라 상이한 의도와 맥락을 내포하므로,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시선의 주체'가 식민지 백성, 무산자, 지식인인지 살펴

15) 근대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사회의 주체로서 자신의 몸을 인식하기보다 단지 남성의 몸과 구분되는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를 감지한다. 섹슈얼리티를 발산하는 여성은 집안과 집밖으로부터 유린당한다. '방'과 '집'을 본거지로 하는 그들은 집 밖을 나온 이후 '거리'를 전전할 뿐 그 거리를 견인하는 기관의 내부(사회)로 편입되지 못한다. (줄고, 「한국근대소설에서 헨릭입센의 「인형의 집」 수용」, 『비교문학』, 2003.2) 남성 작가의 작품과 달리, 여성 작가의 작품은 여성의 시선과 목소리에 주목하고 여성의 자아 정체성을 규명하려 한다. 이덕화의 「나혜석, '날뫼'의 시학」(『여성문학연구』, 2001)과 이명선의 「근대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한국여성학』 19, 2003)는 근대 여성의 정체성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고 나아가 무기력한 지식인인지 전향한 지식인인지 등 작중에 묘사된 '여성의 몸'보다 오히려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성의 시선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은 불투명하고 다층적이다. 시선의 주체가 남성일 경우 그것은 그 시대의 특정 이데올로기일 수 있으며, 작가의 성(性)일 수도 있으며, 그리고 작중에서는 여성의 몸을 응시하는 남성 인물의 성(性)일 수도 있다. 박숙자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남성의 시선과 환상-192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여성의 몸』, 창작과비평사, 2005)에서 김동인의 「배따라기」(『창조』 9호, 1921)와 현진건의 「타락자」(『개벽』, 1922)를 대상으로 남성 작가의 시선이 작중에서 남성 인물의 시선과 중첩되어 '여성의 몸'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주목한다. 박숙자는 1920년대 남성작가의 소설에서 남성의 시선이 성적 주체인 여성의 욕망을 거세하고 처벌하고 있음을 분석해 낸다.

작품에 재현된 '여성의 몸'에는 남성의 동요와 완고성이 착종된 남성의 시선이 따라다닌다. 근대소설에서 욕망하는 여성의 몸에는 통제의 시선이 따른다. 근대소설에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욕망을 읽어 들이는 투사체이다. 욕망의 기제로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과 다를 바 없지만, 당대 지배 권력은 여성의 욕망을 용인하지 않기 위해 여성의 몸에 다양한 규제를 가해왔다. 예컨대 여성의 몸은 '욕망하는 몸'이기 앞서 '생산하는 몸'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양육하는 몸'과 어우러져 '모성성(母性性)'으로 규정되기도 하지만, '생산력을 구비한 몸'이라는 점에서 '노동하는 몸' '인고(忍苦)하는 몸'을 재생산해 내는 기제가 된다.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시선은 여성의 욕망을 수용하지 않으며, 욕망을 억제하는 남성의 자의식을 보여준다. 그것은 남성의 의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당대가 안고 있는 완고성이며 민족의 암울

한 운명까지 담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자와 피식민자간의 식민담론이 작중 '여성의 몸'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재현된다. 김양선은 「육시텐탈리즘의 심상지리와 여성(성)의 발견」(『민족문학사연구』, 2003)과 「1930년대 소설과 식민지 무의식의 한 양상-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향토성의 발견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근대문학연구』, 2004.10)에서 '여성의 몸'을 전유하여 재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담론에 주목하고 있다.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남성 전향작가의 소설에서 남성의 메저키즘이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에 주목한 논의가 있다. 한민주는 「1930년대 후반기 전향소설에 나타난 남성 메저키즘의 의미-김남천과 한설야를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2003)에서 전향한 남자 주인공의 불안심리가 가정을 비롯하여 아내의 몸에 가해지는 가학적 폭력성을 읽어내고 있다. 1920년대~1930년대 남성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몸이 개인의 모드(mode)를 갖지 못하고, 집단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은 단순히 자기 몸의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를 지칭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며, 나아가 자기 몸에 대한 규율과 통제의 주체로서 존재한다. 근대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스스로 자신을 통어할 수 있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몸에 가해지는 다양한 불행의 흔적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이 외, 남성작가와 여성작가의 소설에서 여성의 몸이 각각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주목한 논의가 있다. 김연숙은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육체의 재현양상」(『여성문학연구』 11, 2004)에서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가 작중 인물의 육체를 처리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남성 작가는 남자 인물의 질병에 대해 역사의 무게가 초래한 피로와 공복

이라는 공적 메타포를 부여하는 반면, 여자 인물의 질병은 개인적인 차원의 히스테리와 부덕(不德)으로 처리한다. 근대 남성 작가는 그의 소설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여성의 몸에 패륜과 패덕의 이미지를 부여한다. 그들은 규범과 도덕을 위협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몸은 여성의 목소리를 재현해 낸다. 목소리를 갖고 있는 '여성의 몸'에 비해, 목소리를 갖지 못한 '여성의 몸'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굴곡이 많고 애절하다. 더군다나 여성 작가의 시선에 포착된 여성의 몸이 아니라, 남성 작가의 시선으로 중개되는 '여성의 몸'에는 식민지 근대화가 노정한 미망(迷妄)이 얼룩진 상처로 남아있다. 최근 논의들은 남성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남성이 처한 상황(식민지 남성, 전향 지식인 등)에 따라 '여성의 몸'은 어떠한 짐을 짊어져야 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여성의 몸'에 새겨진 암울한 시대의 자국(흉터)를 새롭게 조명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4. 근대소설에 나타난 반자연성(反自然性)과 자연성(自然性)으로서의 몸

생래적으로 몸을 자연(自然)으로 본다면,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은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다.¹⁶⁾ 몸이 지닌 생득적

16) 요로 다케시는 몸을 전형적인 자연으로 본다. 그는 몸을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인간 자신의 자연으로 여긴다. 요로 다케시·신유미 옮김, 「자연과 문학」, 『일본문학과 몸』(열린책들, 2005), p.93 참조.

인 자연성(自然性)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몸이 자연성(自然性)을 실현하는 시공간이라고 볼 때, 몸 담론은 자연성(自然性)에 역행하는 인위적인 사회 규범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이다. 사회를 만들면서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지만, 우리의 몸은 ‘자연성’을 짊어지고 있다. 성, 배설, 폭력과 같은 몸의 표현은 본시 자연성의 발로이지만, 이러한 자연성은 문학에서 반(反)사회성으로 몰리기도 한다. 사회는 몸의 자연성(自然性)을 규제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몸이 타고난 자연성(自然性)을 모두 거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自然)이 아닌 사회(社會)를 환유하기 시작했다. 옷을 입는 것(복장)도 몸이 지닌 자연성(自然性)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 장치로서 통제하고 규율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개화기 서사물에서 몸이 ‘국가’를 상징하는 수사학으로 동원된다는 것은 몸의 속성을 자연성(自然性)이 아니라 사회성(사회적으로 의미가 부과되는 존재)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근대소설에 나타난 몸 담론의 특징은 반자연성(反自然性)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대(前代)의 인간은 생리적인 관점에서 ‘어른’, ‘여자’, ‘소아’로 구분된다. 계급(신분)에 따라 양반과 평민, 그들이 종사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선비와 농민 등으로 다양한 호칭이 존재했지만, 오늘날과 같이 세분화된 호명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청년과 여학생, 소년과 소녀, 어린이와 유아 등 세밀한 구분과 명명법은 사회가 개별 인간을 구분하고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 된다. 이것은 ‘몸’이 단순히 성별과 노소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직책에 따라 새롭게 재편됨을 보여준다. 몸은 사회가 요구하는 형태로 구성되면서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 예컨대 개화기에는 부국강병의 국

가주의에 부응하는 국민의 신체가 요구되었으며, 1910년대 이광수는 팽창하는 제국주의의의를 지각하고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우생학적 몸을 지향한다.

월경과 임신을 체현해내는 여성의 몸과 사회에 물들지 않은 아이의 몸은 자연성(自然性)을 유지하고 있다. 남성의 몸에 비해 여성의 몸은 더 많은 자연성(自然性)을 지니고 있다. 그런 탓인지,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사회적인 통제는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다. 김동인과 염상섭의 1920년대 소설에는 몸의 욕망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해 옮긴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김동인은 「약한자의 슬픔」(『창조』, 1919.2~3)에서, 염상섭은 「제야」(『개벽』, 1922.2~6)에서 욕망(자연성)을 실현한 여성의 몸은 어떤 단죄를 받아야 하는지 보여준다. 작가는 욕망을 실현해 옮긴 여성의 몸을 ‘낙태’ 혹은 ‘자살’하게 함으로써 죄의 근원을 이 땅에 발부치지 못하도록 송두리째 제거한다. 동시대 남성 작가는 물론 당대 사회는 근대 여성이 발견한 자연성(自然性)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럴과 규범의 명목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함으로써 집단(사회)을 통제한다.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서 몸의 ‘대상화’는 ‘자연(自然)’의 ‘대상화’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개화기 우리나라에 팽배했던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자연(自然)은 피조물로 간주되었으며, 외경(畏敬)의 존재가 아니라 가공되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자연(自然)이 물질적 객체로 대상화하는 과정에서 인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상(李箱)은 그의 수필에서 시골 마을의 ‘자연(自然)’을 비롯하여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의 몸’을 조소하고 사물화 한다. 그에게 자연(自然)은 권태의 공간이고, 인공(人空)으로 조직된 도시는 낙원이다. 이상(李箱)에게 있어서 자연성(自然性)을 간직한 ‘몸’, 그 자체는 아무 의미

를 갖지 않았다. 몸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각혈', '분신', '단발'을 비롯하여 '자살'에 이르기까지 몸의 자연성(自然性)에 역행하는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져야 했다. 1930년대 모더니즘의 기수로서 이상(李箱) 텍스트는 반자연성(反自然性)의 정점을 이룬다. 몸에 가해진 조작이 '각혈', '분신'과 같은 자해(自害)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李箱) 소설은 식민지 지식인의 자조(自嘲)와 일그러진 근대에 대한 저항이라는 다양한 메타포를 거느리게 된다.

자연성(自然性)이 거세되면서 우리는 본연의 몸을 상실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규격대로 몸을 관리하고 치장한다. 개인의 욕망과 사회 권력을 내면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은 새롭게 변형되고 기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몸은 이지러지고 뒤틀리기도 했다. 몸의 자연성(自然性)에 반(反)하여 몸에 부과되는 다양한 규율과 제도는 우리의 몸을 '만들어지는 몸' '구성되는 몸'으로 유통시킨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고 이 사회의 정체성과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 담론'을 제기한다. 우리가 몸 담론을 에피스테메의 수준으로 부상시키는 것은, 언표를 갖지 못하는 '몸의 언어'를 읽어 냄으로써 우리 몸에 가해지는 다양한 억압의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이다. 에피스테메로서 몸 담론은 문학과 사회학, 철학과 종교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을 관통하면서 특정 시대 특정 언설을 파악하는 방법론으로서 존재한다. 몸이 추구하는 지향점인 자연(自然)은 몸을 전제로 한 담론에서 자유(自由)를 환유한다. 몸은 인간의 존재방식을 구현해 내는 틀이다. 자연(自然)이 그러하듯, 자유가 우리의 몸을 통해 역동적이고 평화롭게 구현될 때 까지 '몸 담론'은 지속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근대소설에 국한하여 몸 담론의 전개과정과 쟁점을 살펴보았지만, 기실 몸 담론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이

라는 자연(自然)'을 현실에 복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다채롭게 등장할 것이다.

5. 결론

한국문학 연구과정에서 몸 담론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전대의 연구에서 '몸'은 특정 주제와 모티프의 관점에서 소용이 되었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몸'은 담론의 주체로 부각되어 문학연구방법론(몸 담론)으로 적극 수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근대소설 연구과정에서 논의된 '몸 담론'의 전개과정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근대소설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몸 담론은 1890~191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로 구분된다. 1890~1910년대 개화기 서사물을 대상으로 한 몸 담론은 국문학 뿐 아니라 인접 인문학의 장에서도 전개되었는데, 이 시기 몸 담론은 국가주의에 상응하는 '국민'의 신체 만들기라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읽어내고 있다. 1910년대를 대상으로 한 몸 담론은 이광수의 『무정』과 그의 논설을 텍스트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이광수는 몸의 개별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몸의 공리성을 지향했다. 1920년대를 대상으로 한 몸 담론에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논의가 주조를 이루었는데, 염상섭과 김동인 등 1920년대 소설에서 여성의 몸에는 다양한 통제가 각인되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몸 담론'은 1920년대 소설을 비롯하여 1930년대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다. 1930년대를 대상으로 한 몸 담론에는 근대적 개인의 모드(mode)로서 개성적인 몸이 조명되는데, 대표적으로 논의된 작가는 이상(李箱)이다. 특정 시기에 나타난 몸 담론은

개별 시기의 특수성이라기보다 그 시기를 정점으로 나타난 몸에 대한 억압과 자율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바탕으로, 몸 담론의 쟁점은 '체제를 내면화하는 집단의 모형', '근대적 인간으로서 개인의 존재방식', '여성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여성의 몸' 세 가지로 나타났다.

몸 담론의 발생은 몸에 대한 규제와 횡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반증해 준다는 점에서, 몸 담론은 체제와 권력에 대한 전복과 저항의 담론이다. 근대소설의 연구방법론으로서 몸 담론은 당면한 시대와 현실에 대한 작가의 통찰과 논자의 비판에 의해 형성되었다. 근대소설 연구방법론으로서 '몸 담론'은 근대에 양산된 다양한 담론을 읽어낼 수 있는 독법을 제공한다. 몸 담론은 개화기를 거쳐 근대(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 국가주의 식민주의 자본주의 등 이 땅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드리운 그림자와 더불어 근대적 인간의 존재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근대소설에 재현된 몸은 우리가 처한 시공간의 특성에 따라 일그러지고 변형되어왔다. 우리의 몸은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동참하거나 의도적으로 타협했지만, 근대적인 몸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위반하거나 저항, 일탈을 보이기도 했다.

근대소설 연구방법으로서 몸 담론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근대소설에 나타나기 시작한 몸 담론은 세기말(1890년대)과 세기초(1900년대) 다양한 체제 변화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구세대 왕조문화의 소멸과 더불어 한국이 직면한 국가주의, 제국주의, 문명화, 전대와 다른 '사회(社會)'라는 집단적 시스템의 가동 그리고 그러한 집단에 대응하는 '개인'이라는 근대적 인간의 존재방식 등을 시사한다. 근대소설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몸 담론은 한국 근대의 다층성을 '몸'

이라는 여과기를 통해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조명한다. 둘째, 몸 담론은 궁극적으로 치유 담론을 지향한다. 몸의 자연성(自然性)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근대소설에 나타난 몸 담론은 정신을 치유한다. 자연성(自然性)을 구현해 내는 몸은 지금까지 억압과 구속을 내면화 해온 정신을 치유할 수 있다. 통제받고 규제받았던 몸은 체제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 의지를 실현한다. 셋째, 몸 담론은 9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근대성’ 논의에 구체성을 확보한다. 몸 담론은 근대문학에 나타난 근대성의 다층적인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미시적인 방법론이 된다. 넷째, 몸 담론은 문학뿐 아니라 인접학문과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담론으로서 학제 간 연구의 토대가 된다. 문학과 사회학, 종교학과 여성학, 철학과 한의학 등 다양한 인접학문과 소통함으로써 담론의 입체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몸을 ‘개별적인 몸’, ‘집단적인 몸’, ‘정치적인 몸’으로 구분한다면,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몸’은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단화되었다. 문학작품에서 호명된 몸은 개별적인 몸의 자연성(自然性)보다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명제를 환유해 왔다. 리얼리즘 소설에서 몸은 개별성보다는 집단성을 구현해낸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얼리즘 소설에서 지배당하는 몸, 종속당하는 몸은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권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권력을 감지해 내지 못한다. 작중 인물의 몸은 집단의 목적에 맞추어 선택되고 배제당하는 반면, 주체는 자신의 몸에 드리워진 권력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는다. 집단적 사고의 구현체로서 몸이 어떻게 구현되고 그에 따라 감정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등 리얼리즘 소설에 나타난 몸 담론은 리얼리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모더니즘 소설을 대상으로 논의되던 몸 담론이 리얼리즘 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

으로, 아울러 근대문학논의에 집중되어 있던 몸 담론이 현대 문학 일반에 걸쳐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이 글에서 필자는 근대소설 연구과정에서 몸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떠한 쟁점을 보였는지 소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그러니 만큼,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필자의 개별적인 해석과 관점은 지면을 달리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① 개항기 몸 담론 - 발표시기순

김윤성, 「개항기 개신교 의료선교와 몸에 대한 인식들의 '근대적' 전환」(서울대 종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박현우, 「개항기 '몸' 담론의 의미 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조형근,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1997).

이승원, 「근대계몽기 서사물에 나타난 '신체' 인식과 그 형상화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12).

고미숙, 「병리학과 기독교-근대적 신체의 탄생」,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책세상, 2001).

이재봉, 「근대 인식의 추상성과 구체성-1910년대의 단편소설」, 『몸의 역사와 문학』(태학사, 2002).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 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② 이광수의 「무정」과 계몽 담론을 대상으로 한 몸 담론 - 발표시기순

이영아, 「이광수 『무정』에 나타난 '육체'의 근대성 고찰」, 『한국학보』 28, 2002, 봄호.

구인모, 「『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 『비교문학』 28, 2002.

이경훈, 「『무정』의 패션」, 『오빠의 탄생』(문학과학지성사, 2003).

신정숙,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민족개조사상'과 '몸'의 관계양상에 관한 연구」(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3).

③ 1920년대 김동인과 염상섭 등의 소설을 대상으로 한 몸 담론 - 발표시기순
이혜경,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신체-IMAGE 연구」(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90).
이 경, 「1920~1930년대 소설에서의 매춘-제도의 거울」, 『한국현대문학의 성과 매춘』, 태학사, 1996).

김윤선, 「192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性談論 연구-性賣買를 중심으로」(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의 섹슈얼리티 연구-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박숙자, 「여성 육체에 대한 남성의 시선과 환상-192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의 몸』(창작과비평사, 2005).

④ 이상(李箱) 소설과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을 대상으로 한 몸 담론 - 발표시기순
김주현, 「이상 소설과 분신의 주제」, 『한국학보』 95, 1999.

이경훈, 『이상, 철천의 수사학』(소명출판, 2000).

이재복, 「李箱 소설의 몸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1).

안미영, 「李箱 소설에 나타난 신체인식 표출양상」(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1).

김양선,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과 몸의 서사」, 『여성문학연구』 8, 2002.

김주리,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체담론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⑤ 근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몸' 관련 논문 - 발표시기순

이덕화, 「신여성 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여성문학연구』 1권 4호, 2000.

_____, 「나해석, '날몸'의 시학」, 『여성문학연구』, 2001.

한민주, 「이효석의 전향소설에 나타난 신체의 정치학 연구」, 『근대문학연구』, 2002, 하반기.

이명선, 「근대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19, 2003.

김민정, 「강경애 문학에 나타난 지배담론의 영향과 여성적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어문학』 85, 2004.

- 김연숙,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육체의 재현양상」, 『여성문학연구』 11, 2004.
- 김양선, 「옥시덴탈리즘의 심상지리와 여성(성)의 발견」, 『민족문화사연구』, 2003.
- 한민주, 「1930년대 후반기 전향소설에 나타난 남성 메저키즘의 의미-김남천과 한 설야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003.
- 김양선, 「김유정 소설에서 향토의 발견과 섹슈얼리티-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향토의 발견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근대문학연구』, 2004.

그 외 다수.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Issues of Discourses on the Body in Modern Novels

Ahn, Mi-Young

The present study examined “discourses on the body” in modern novels. Discourses on the body were developed through four periods - 1890s ~ 1910s, 1910s, 1920s and 1930s. Discussions on narratives and new style novels in newspapers in the 1890s~1910s are focused on making the body of ‘the people’ equivalent to nationalism. The key point of discussions on Lee Gwang soo’s ‘Mujeong’ in the 1910s and his editorials appears to be ‘a eugenic body complicated with individuality and public interests.’ Discussions on novels in the 1920s are focused on ‘the body of craving women’ and ‘the eye of suppressing desires.’ Discussions on modernistic novels including Lee Sang’s works in the 1930s deal with ‘individual bodies’ as ‘modern beings.’ Bas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discourses on the body as presented above, we examined issues in discourses on the body in modern novels, dividing them into ‘a model of group internalizing the system,’ ‘the way of existence of ‘individuals’ as modern men and women’ and ‘women’s body that reproduces women’s voice.’

key words : discourses on the Body, the body of ‘the people’, a eugenic body, a model of group, individual bodies, the body of women.

■ 위 논문은 4월 5일 투고되어, 5월 6일 심사완료 후, 5월 1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